



취업정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주)화인토이 = 해외영업부,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565-1162/4
△해군본부 = 해군장학생 (장교), 해병대, 해병, 하사관 모집, 문리대, 정경대, 법대, 812-4379
△(주)두남해운 = 해상수출입 (문리대, 사대)
△(주)해태유동 = 해외영업부,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4400-7711/3
△(주)한국아스트라 = 마케팅 및 미디어칼, 약대 587-8174
△(주)모아무역 =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575-1922
△화인번역 = 문리대, 사대 3142-32110

【수원캠퍼스】

△금호생명 = (02) 3702-9854
△(주)티엠케이 = 경영학, (02)

553-5001
△(주)타이거항공해운 = 영문학, 31일까지, (02) 337-8811
△오세혁 법률사무소 = 4월 10일까지, (0331) 211-9001
△국제생명 = 4월 6일까지, (02) 538-6456/8
△해양해운항공 = 31일까지, (02) 774-5202
△(주)광동뉴텍 = 4월 15일까지, (02) 3668-2313/4
△황소의 눈 = 515-6805
△한진실업 = 786-9167

아르바이트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주)한국닐슨 = TV사사회, 1시간 소요, 1만 4천원, 548-9765
△(주)동서 리서치 = 설문조사, 1부당 1만원, 569-6550
△글로벌 교육문화원 = 사무보조, 번역작업, 월 40만원-70만원, 677-9595
△한국렌탈주식회사 = 하루 7시간 근무, 1일 2만원, 557-0473
△창작 프로덕션 = 만화 스토리작가, 4월 4일 면접, 3457-8465
△대학교육평가원 = 점검고시 수험생 지도, 시간당 3천원, 253-7011
△(주)카드인 = 전단지 배포 및 사무보조, 564-0033

알림터 이용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마감

알림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시판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식이나 알리고 싶은 일을 전해 주십시오.
문의 Tel. (02) 961-0095, Fax. 962-7718
Tel. (0331) 201-2056, Fax. (0331) 204-8121

열린소리 참여안내

열린소리는 경희 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은 사안·취재 제보가 있으면 학내에 비치된 열린소리함이나 다음 PC 통신 ID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내외
- 보낼곳: 서울·수원 본사 편집실
- 하이텔(ID): khunews 천리안(ID): zpiknews

'하늘에서 세익스피어를 만나세요'

천국에 가 있는 진용우 교수에게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 전 도서관으로부터 진행이 전국 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전갈을 받고 급히 병실로 달려갔을 때 진형은 아직도 나를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형의 손을 잡고 고별기도를 드리고 "아멘!"했을 때, 형의 입술이 가냘프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내가 기도할 하면 명확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신던 형이 그 시간에는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눈물이 왈칵 나오더군요.

형은 책을 읽다가 잠이 들듯, 고뇌의 장막을 빠져나와 천국으로 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 지낸 것은 1952년 이른 봄 부산 피난생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형은 동광동 학교에서 가까운 영주동에서 지체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석유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자취방에서 그때만

해도 혼하지 않았던 타자기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돈을 벌며 열심히 공부한 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1953년 제1회졸업생 39명 (영문과, 국문과, 중문과) 중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경희대 졸업번호 1호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형은 그런 자랑 한번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졸업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형과 나와 다른 세 사람이 그 유명했던 "40개 층층계단"에서 활짝 웃으면서 찍은 그룹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Breathing at the forty steps" 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이래 우리는 언제나 함께 숨쉬며 살아왔는데, 이제 형이 먼저 그 숨을 거두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은 주어진 인생을 유감없이 사셨습니다. 형이 하고자 한 일에 전념하면서 한 발자국도 외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세익스피어 연구에 있어서는 그 학계에서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느 해 세익스피어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토론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

△(주)한국도우미 센터 = 나레이터 모델, 516-1604
△(주)만정안전기획 = 경비요원, 3442-6220

등 기

등기물우편실로

【서울캠퍼스】

△철학 = 조진철 (94) 정재임 (96) △생물 = 박수영 (4) 조은아 (96) △국문 = 김진아 (2) △지리 = 허승이 (3) △법학 = 김주영 (4) 이용호 (3) 양승희 (96) 한권탁 (1) 김민태 △신방 = 명진해 △경제통상 = 최치훈 (1) 박진주 (1) △경영 = 박종필 △영교 = 김현정 (95) 이혜진 (97) △식영 = 김주경 (4) △의상 = 한세화 (2) △생활과학 = 진유승 (1) △의학 = 박홍수 (예1) 정연욱 (4) 박상진 (2) △한의학 = 이병주 (본3) 박홍식 (본3) 백승훈 (96) 소나무 (97) △치의학 = 이

서라 (본1) △약학 = 이향 (4) △성악 = 이상민 (3) 김형준 (2) △작곡 = 이영진 (97) △관현악 = 강은영 △총학생회

【수원캠퍼스】

△애지원 = 김민철 (107) 장혜진 (307) 이승진 (507) △섬유 = 윤성은 (2) △원자 = 전영도 (4) △기계 = 신명철 (3) △화학 = 이지훈 (4) △토목공 = 배효근 (3) △회계 = 오세용 (4) △유전 = 이홍규 (3) △러시아 = 김중근 (2) △농학 = 조재현 (3) △학생회관 = 박수원

모임

【서울캠퍼스】

△여의도고 (남,녀) 동문회 = 4월 2일 오후 6시 캠프리치
△부산 해동 동문회 = 4월 1일 오후 6시 정문
△경희 석산고 동문회 = 4월 4일 오후 6시 경희회관

△광주 (여)고 동문회 = 4월 4일 오후 6시 불다광
△검정고시 신입생환영회 = 4월 3일 오후 6시 개성식당
△강서고 동문회 = 4월 3일 오후 6시 정문
△신정고 동문회 = 4월 4일 오후 5시 연신내 피자컷

습 득

본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갈색 장지갑 = 문지연 (신방93)
△국가기술자격증 = 김경은 (수학)
△검은색 반지갑 = 김기환 (경영 97)
△검은색 상단지갑 = 서명선

【수원캠퍼스】

△시터폰 = 지난 23일 오후 10시 경 셰이린 앞



삼니다

【서울캠퍼스】

△심금침대 = 가격절충, 015-1846-5442
△CD Rom Drive = 가격절충, 015-216-3934
△CDP = 가격절충, 3493-7490
△노트북 = 가격절충, 012-247-2445

【서울캠퍼스】

△심리학개론 = 가격절충, 012-921-3351

【수원캠퍼스】

△경영학입문, 영화영어, English partner, 통계학의 이해, 심리학 개론 = 가격절충, 015-8430-7559
△식생활과 건강, 언어의 이해, 소설의 이해와 감상, 영화영어, 국제무역 = 가격절충, 012-814-1021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베품시장인 '도깨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 팔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깨비장터 대자보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



이 상 욱
(연원정보대학원객원교수)

다시 봄이 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우수에 찼던 세느강변의 공기가 싱그러운 신록의 향기로 상쾌하게 스쳐간다. 마로니에 가로수 아래로 길게 뻗은 노점 책방 거리가 활기를 띠고 아코디언을 켜는 솜사탕상주 주변에 관광객과 꼬마들이 모여든다. 파리의 봄은 그렇게 왔다. 봄과 함께 부쩍 늘기 시작한 서울 손님을 공항에서 호텔까지 안내해 준 나는 그 길로 부지런히 학교를 향했다. 강의가 막 시작한 후 교실에 들어선 나는 뒷구석 자리를 찾았다. 여학생들은 나를 보자 '무수 리'가 나타났다고 웃으며 반겼고 같은 반 공우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3월말에 강의실에 나타난 '결석대장'인 나를 그들은 그렇게 대해 왔다. 펼쳐든 책의 페이지 수는 열장 넘게 넘어가고 강의진도는 저만치 지나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한국에서 온 기지라는 것을 알고 항상 바쁜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었지만 본인으로서의 자신 때문에 지적질하는 학승진도에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3개월 코스 불어 중급반을 두 번째 등록했지만 이번에도 과정을 마치기는 훨씬 더 같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중도 포기를 결심하고 다음 학기에 잘해보리라 마음을 다진다. 교정에는 젊은 학생들의 분주함이 웃음으로 피어나고 그들의 블루진에서는 타일 듯 팽팽한 젊음이 악동한다. 금발과 아프리카계 유학생이 스스

럽없이 어울리고 중등과 마그라브 학생들은 이스라엘을 성토하느라 열을 올리는 모양이다. 프랑스의 대학 캠퍼스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의 토론허이자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저만치 돌게닫에 동양계 학생 서너 명이 앉아 무언가 말을 나눈다.

첫눈에 그들이 한국 유학생임을 통족인 나는 욱갑으로 안다. 교정에서 흔히 접하는 풍경이지만 우리 유학생들의 표정은 왠지 어둡고 침울해 보인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짙은 외로움이 배어 나온다. 그때마다 나는 자문해 본다. 무엇이 그들을 어둡게 만드는 걸까. 학비걱정, 학점걱정, 취직자리 걱정 등 고민거리가 많은 것이 라고 생각해 보지만 타국 학생들이라고 그런 근심거리가 없으란 법은 없지 않은가. 유독 심각한 우리 학생들의 표정이 좀더 밝아지기를 희망해 본다. 녹음테이프며 원고지가 어지러운 사무실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서울 본사에서 전화가 온다. 국제 제비마를 출제해 보나 내일 노동회의를 총회 보고도하라는 주문이 떨어진다. 속으로 피식 웃는다. 공부할 팔자가 못되는가 보다. 도중하차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창밖 동백르나스 공원외지의 푸른 숲을 본다. 멀리서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공부해 해야 할 시기가 있는 법이고 그때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다. 어찌 그렇게도 잘 맞는 선현들의 말씀인지 새삼 절실하게 가슴에 다가온다. 프랑스 특파원 발령을 받고 수속 밟으라 불어공부하라 허둥지둥 두달 여를 보내고 불속

파리에 나타났으니 오기로 버틴다지만 곤혹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렇 줄 알았으면 학생 때 제 2외국어를 불어로 택할 절하고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대학부설 불어학원에 등록하고 부지런히 하면 중급정도 반년 안에 도달하겠지 결심을 굳혔건만 스케줄은 영 판판으로 가고만 있다.

공사간에 웬 손님이 그리도 자주 오는지 공화과 호텔을 헛바퀴 돌 듯하고 본사의 취재지시는 간단없이 떨어지고 대사로관으로 의무상으로 뛰어나다 보면 학교강의실에 얼굴 내밀기가 일주일애 두어 번 정도다. 선생님과 동료 얼굴보기가 민망해서 이번에는 뿔렀고 다음 학기로 넘어 가 잘해 보자고 다짐한 것이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무안을 당하고 중도 포기다. 유명한 '막심'식당에서 요리를 시키며 마루 앞에 유창한 불어실력을 과시하기는 영 틀렸나보다. 쓴 웃음을 지으며 주섬주섬 출장기방을 챙긴다.

그렇게 파리생활 3년을 보내면서 세 번째 학교등록을 했지만 끝내 실패로 불어공부를 마감했다. 창 밖 경희캠퍼스에 는 나무는 달라도 푸른 봄이 목련과 함께 피어나고 젊음이 여기저기서 밝은 표정으로 약동한다.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 백인과 흑인과 콧수염을 단 사람들,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어느 봄 파리를 떠나던 날 차창 밖으로 지나는 세느강을 보면 서 너는 문득 '아벨리네르'의 시 '미라보리'를 읊조렸다. 그때까지도 나의 불어는 더듬거림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라보 다리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흐르네,
내 마음 속에 아로새기는 것
기쁜은 짐짓 고생 끝에 이어 온다는 것을...

주간 식단표

3월30일~4월5일		서울 복지회관 식당					
구분	요일	월(30일)	화(31일)	수(1일)	목(2일)	금(3일)	토(4일)
아침	3층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2층	콩비지찌개 1,300	시금치된장국 1,300	쇠고기미역국 1,300	콩나물국 1,300	연두부계란탕 1,300	쇠고기국 1,300
점심	3층	비프스튜 1,700 쇠고기김치볶음밥 1,500	생선국수 1,700 쇠고기볶음밥 1,500	해리리스 1,700 쇠고기김치볶음밥 1,500	경희정식 1,700 오징어떡볶음 1,500	죽밥 1,700 계유떡볶음 1,500	사태떡볶음밥 1,700 얼무비빔밥 1,500
	2층	갈비탕 1,700 콩나물밥 1,300	부대찌개 1,500 쇠고기장채밥 1,700	불고기덮밥 1,500 오징어떡볶이 1,700	육계장 1,500 영양밥 1,700	김치찌개 1,700 콩나물다들떡볶음 1,300	
저녁	3층	오믈렛라이스 1,500 닭갈비백반 1,700	스파게티 1,500 해물잡채밥 1,700	스위스롤 1,700 마파탕 1,500	카레라이스 1,500 쇠고기볶음밥 1,700	우라이드치킨 백반 1,700 짜장두부덮밥 1,500	햄볶음밥 1,500 사골우거지국 1,500
	2층	짬뽕국밥 1,500	사골떡국 1,500	산채비빔밥 1,700	탕수육백반 1,500	김치수제비국 1,300	

3월30일~4월5일		수원 학생회관 식당					
구분	요일	월(30일)	화(31일)	수(1일)	목(2일)	금(3일)	일(5일)
아침·점심	1,200	배추국	계란과국	미역국	냉이국	시금치된장국	쇠고기무국
	2,000	탕수육	모듬가스	잡채덮밥	비빔밥	돈가스	오므라이스
면류	1,500	참비빔냉면	졸면 1,200	칼국수	모듬비빔국수	짜장면 1,200	짜장면 1,200
저녁	1,200	대구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감자국	당면과국	김치찌개
2,000	1,500	쇠고기제육덮밥	닭볶음덮밥	설렁탕	삼선짜장밥	민두국	
스낵		우동,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만두튀김, 치킨S, 씨리얼S	우동,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만두튀김, 치킨S, 씨리얼S	우동,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만두튀김, 치킨S, 씨리얼S	우동,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만두튀김, 치킨S, 씨리얼S	우동,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만두튀김, 치킨S, 씨리얼S	

3월30일~4월4일		수원 공대식당					
구분	요일	월(30일)	화(31일)	수(1일)	목(2일)	금(3일)	토(4일)
아침		미더덕콩나물국 1,300	썩된장국 1,300	조개탕미역국 1,300	실파두부조개국 1,300	산지해장국 1,200	김치수제비국 1,300
		참치김치찌개 1,300	육계장 1,300	계유떡볶음밥 1,300	돼지갈비김치찌개 1,500	오징어떡볶이 1,300	사골순대국밥 1,300
점심1		스파게티정식 1,500	일식돈가스 1,500	탕수육백반 1,500	함박스테이크 1,500	돈육보쌈백반 1,500	오므라이스 1,500
점심2		카레라이스 1,300 불고기필라프 1,300	꽃게탕 1,500 쇠고기콩나물밥 1,300	창국장찌개 1,200 돈육김치덮밥 1,300	삼주불고기 비빔밥 1,500 중국식볶음덮밥 1,500	닭볶음탕 1,500 떡볶이전두부탕 1,500	
저녁		오징어튀김900 순대떡볶음1,000	고구마떡볶이1,000 프렌치토스트900	떡볶이 900 양념치킨1,200	짬뽕튀김900 해물파전1,000	샐러드1,200 군만두1,000	햄버거900 김치전900
면류		만두라면 1,000	떡라면 1,000	김치라면 1,000	만두라면 1,000	김치라면 1,000	떡라면 1,000

번역되기전에 작품의 질 증명되어야

한국문학의 번역에 대하여

나는 1994년 미국 체류 중 문학적 재능이 내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한국시를 영어로 번역해 보고자 미래사에서 출판한 102명의 시인들의 작품집을 구입했다. 그리고 나는 매우 놀랐다.

내가 읽은 한국 시인들의 작품수준이 너무나 낮았기 때 문이다. 그전까지 나는 미국 현대 시인들의 작품을 공부하고 연구해 왔었다. TV방송에서도 골잘 시문학에 대한 특집방송이 방영되어 흥미롭게 보곤 했었다. 그러나 한국 시인들의 저 수준은 그 미래사의 시집을 읽기 전에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 독서결과가 너무나 실망적이였다.

내가 영어로 번역하고픈 작품이 거의 손가락 꼽을 정도의 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한국에 귀국한 후 나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시집들을 구입해서 또 읽어보았다. 번역한 사람들은 영어를 원어로 쓰는 Native speaker들이어서 영어로 표현한 한국시들이 쉽게 내 머리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세계문학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낮았다. 특히 미국내에서 한국학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번역서는 더욱 형편없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그 방면의 서적들을 뒤져보며 관심을 잃지않고 조사해왔다. 그래도 별 큰 성과는 얻을 수 없었지 나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좋은 작품을 번역하면 좋은 번역이 되고 나쁜 작품을 번역하면 나쁜 번역이 된다.

즉 원작이 명작의 수준을 갖춘 우수한 작품일 경우는 번역된 영어판도 그리 낮은 수준일 수

는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한국시를 번역하는 Native speaker들은 한국말로 된 시의 수준을 가능할 전문기적 안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한국시가 수준미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번역작업을 착수하는게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우리 학교 영문과 교수님인 오록 신부님이 고려가요와 향가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기사를 2월 23일자 대학원보에서 알게 되었다. 나는 매우 기뻐다. 왜냐하면 오록 신부님은 벌써 한 시와 시조, 이규보 그리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고전시 번역가이기에 내가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분이였기 때문이다. 현대시가 수준미달이라면 우리 고전시가는 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의 시험과 평가를 이겨낸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고의 교수정서를 풍부하게 함양하고 있는 보고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록 신부님이 고려가요, 향가를 무사히 번역해 주시길 빌고 있다.

이번에도 대산재단에서는 한국문학번역상을 내걸고 번역가들의 응모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산재단에서 상을 탄 한국문학 작품들은 번역되기 전에 독자들이 평론가 그리고 일정한 시일을 통해서 명작의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한다. 너무 이른 번역작업은 재고되어야 할 점이라고 하고 싶다.

남상남
(영문과 박사과정 1기)